

지역 유통가 '환경의 날' 기획전 다채

광주신세계
오늘~10일 '온-그린 마켓'
폐 플라스틱 활용 '비건 패션'
에코백·플로깅백 증정 행사도

롯데백 광주점
선착순 300명 친환경 장바구니

롯데마트
플라스틱 뚜껑 없는 세계

이마트
신선·가공·생활·주방 2000여개
친환경 인증상품 구매 이벤트



롯데마트 월드컴점 직원이 비닐 사용을 줄인 '무라벨 탄산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 '무라벨 생수'에 이어 쓰레기 배출을 줄인 상품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친환경 상품 사서 자연 지키고 경품도 받으세요."

'세계 환경의 날' (5일)을 앞두고 올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ESG 경영'을 선포한 유통가들이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新光주신세계는 4~10일 일주일 동안 분관 1층 행사장에서 친환경 업체 9곳과 기획전 '온-그린 마켓'을 운영한다.

폐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과 인조 가죽을 내세운 '비건 패션' 등을 이번 기획전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 '플라스틱 프로젝트'와 담양 '유지유재희' 등 지역 업체도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제휴카드로 10만~20만~40만원 이상 구매하면 금액의 5% 상당을 신세계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광주신세계를 포함한 신세계계화점 모든 점포는 4일부터 신세계 앱을 통해 전자영수증 신청을 하고 고객에게 조선히호텔과 협업해 만든 천가방(에코백)을 준다.

이 천가방은 호텔에서 사용한 리넨 침구를 수거해 세탁하고 손질해 만들었다. 11일부터는 역시 전자영수증 신청 고객에게 '플로깅 백'을 사은품으로 준다. '플로깅'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을 말하며 '줍깅'으로 불리기도 한다. 에코백과 플로깅 백은 당일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제공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4일부터 6일까지 지하 1층 푸드애비뉴 방문고객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준다. 하루 100명에게 선착순 증정한다.

광주·전남 9곳을 포함한 롯데마트는 3일부터 16일까지 플라스틱 뚜껑이 없는 '무공해 친환경세계'를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장바구니를 준다.

롯데가 지난 1월 선보인 '무라벨 생수'는 기존보다 매출이 80% 넘게 증가했다. 지난 4월 말 판매를 시작한 '대나무 칫솔'은 한 달 평균 약 1500개 이상 팔렸다.

롯데마트는 온라인 쇼핑물 롯데온에서 '세상을 바꾸는 착한 소비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판매는 대형마트 최초로 진행되는 ESG 관련 온라인 기획전이라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여기서는 19개 업체와 협업해 상생의 의미를 담은 상품 200여 개를 선보인다. 올 들어 이들 '착한 소비' 상품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1% 증가했다.

광주·전남 6개 이마트는 '그린카드' 또는 '에코머니' 문구가 담긴 친환경 인증 상품을 사면 '에코머니'를 기존의 10배 수준으로 적립해준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 해당 제품은 신선·가공·생활·주방용품 등 2000여 개에 달한다.

'에코머니'는 그린카드도 친환경 인증 상품을 구매하는 등 친환경 활동을 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그린카드 1개당 행사 기간 동안 최대 1만 점 적립이 가능하며 행사 종료 후 익월 말 일괄 적립된다.

적립된 에코머니는 신세계상품권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

친환경 인증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인증마크는 총 9개이다.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탄소발자국, 저탄소 제품, 유기농 인증, 무농약 인증, 저탄소농산물 인증, 유기농식품 인증, 자원순환우수제품 등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 상품을 사면 해당 가격의 15~90%에 해당하는 에코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일부 상품에 최대 50% 행사카드 할인과 신세계 포인트 적립 할인 등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9900원짜리 '저탄소인증 사과(4~7입)'를 사면 가격의 90%에 해당하는 9000원 상당 에코머니가 적립된다. '저탄소인증 하우스 감귤'(7980원)에 대한 적립 에코머니는 7900원이다.

4일부터 25일까지는 일상에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참여자를 이마트 공식 인스타그램(emartstore)에서 모집한다. 추첨을 통해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만든 업사이클 집게, 집게가방, 메쉬망, 마스크, 장갑, 다우니 폼퓌 세탁세제 등으로 구성된 '줍깅' 꾸러미를 총 200팀(400명)에게 각 2개씩 제공한다.

오는 18일까지는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을 통해 종이 영수증 절감량 누적 1억건을 돌파한 기념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동잡 운동을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벌써 육류 성수기?

5월 축산물 매출 급증...캠핑 등 영향
이마트, 9일까지 20~50% 할인행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내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5월 축산물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이마트는 올해 5월 축산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8%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5월 매출과 비교해도 26.8% 증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육류 수요는 매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추석이 있는 9월께 정점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올해는 캠핑 등의 대중화로 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두 달 정도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이 같은 수요를 잡기 위해 SSG닷컴과 함께 3일부터 한우와 돼지고기, LA갈비 등 육류를 20~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한다.

대표 품목으로는 1등급 등심을 100g당 6828원에 판매하고, 1등급 국거리, 불고기는 각각 100g당 3528원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6일까지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한우 전 품목을 40%, SSG닷컴은 육류 상품 133종을 최대 50% 할인한다. 9일까지 7대 브랜드 삼겹살, 목심을 각각 100g당 2480원에 판매하며,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LA갈비 전품목을 40% 할인한다. /백희준 기자 bhj@

효성티앤씨, 수영의류 브랜드에 친환경 섬유 공급

효성티앤씨는 수영·리조트 의류 브랜드 '데이즈 데이즈'(DAZE DAYZ)에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리젠'(regen®)과 스파넥스 섬유 '크레오라 파워핏'(creora® Power Fit)을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효성티앤씨의 리젠과 크레오라 파워핏은 데이즈 데이즈의 '썸머 피크닉 컬렉션' 수영복과 윈피스, 랩 스커트, 블라우스 등 리조트웨어에 적용됐다.

데이즈데이즈는 최근 20~30대 여성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리조트웨어 브랜드로, 포장재를 재활용하고 빠르게 생분해 가능한 소재로 변경하는 등 지속가능한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리젠은 효성티앤씨가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폴리에스터 섬유다. 리젠은 환경친화적인 특성을 내세워 젊은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전년 대비 40%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류 형태와 몸을 잘 잡아주는 기능이 필수인 수영복 등에는 스파넥스 크레오라 파워핏이 쓰였다.

한편 썸머 피크닉 컬렉션은 데이즈데이즈의 온라인몰과 이달 말 더현대, 갤러리아 명품관 West, 제주그랜드 하얏트 호텔 등에서 열리는 시즌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FTA활용지원센터, 수출지원 본격 시행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지역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센터는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활용 재직자 교육과 전문상담실 운영, 해외시장 진출지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맞춤형 컨설팅, FTA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12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센터 내 2명의 상주 관세사를 배치하고 외부에는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5명의 전문 관세사를 통해 지역 수출기업들의 수출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OK FTA 컨설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출업체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업체별 인증 수출자 인증취득을 지원, 수출 협력업체에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과 원산지확인서 전산발급(FTA KOREA)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 10인

미만,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기업에는 올해 말까지 원산지 관리 집중지원 컨설팅을 펼칠 예정이다.

수출기업 및 FTA 미활용기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내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FTA 조사·연구 등을 실시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방안 마련에도 힘을 기울인다. 기업당 최대 50만원 내에서 해외시장 진출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도 무료 지원한다.

이후형 센터장은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광주FTA활용지원센터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관세청,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은 선박 부족과 운임 급등으로 고충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 물품 검사 과정의 물류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출검사를 시행하고, 우수업체와 저

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아예 생략한다.

기업이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지 못한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으며,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할 때 부과한 각종 행정제재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관세 납기를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도 확대한다.

이밖에 수출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방침을 적용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지원 대책은 수출입 물류 사정이 원활해질 때까지 당분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

www.kwangju.co.kr